

제2회 행가람 큰모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꿈꾸는 부부들의 참여”



지난 7월 1일 (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행가람), 제2회 큰 모임이 경기도 진성골 사랑의 집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42쌍의 부부 (78명)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에 참석한 부부의 주된 연령층은 30-40대였다. 이를 보니 점점 가정과 부부에 대한 관심이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록을 마친 후, 부부별로 테이블을 오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빙고게임을 시작했다.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마치고자 분위기도 부부관계도 고무되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장으로

있는 김덕일 전도사의 <부부대화 소통기법>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그 동안 가정 사역팀에서 구역교재로 사용하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한국 유일한 코치인 김전도사는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헌신)에 치우친 것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쉼과

오(따뜻한 마음)와 애로스(열정)에 대한 균형적인 사랑에 대하여 설명했다. 2부에서는 가정사역팀에 속한 부부들을 중심으로 모여 건강한 의사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워킹이 있었다. 부부별로 배우자에 대한 십십리스트와 소망리스트를 나누며, 구체적인 표현기법에 대해 배워서 표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3차 행가람 큰모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를 꿈꾸는 부부들이 더 많이 참여해 건강한 교회의 물고를 트는 귀한 모임이 되길 소망한다고 가정사역팀의 권주리 집사는 전했다.

2006-1 양육과정 수료식



7월 5일 수요일에 배에서 1학기 양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양육과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목표 아래 3월7일부터 7월7일까지 100과정(만남), 200과정(성숙), 300과정(섬김),

청년새벽부흥회가 매일(주일 제외) 오전 6시 15분부터 중예배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상호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하여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아침을 여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다. 지난 주 수요일에는 윤은성목사가 ‘마음을 합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

400과정(선교)으로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24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선교이야기]를 수료한 이상욱 집사(5교구 8구역)는 기독교 미개척지 등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집사, 선교사들의 힘든 선교 사역에 감명받아 ‘I will send You’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선교 봉사하는 의료팀과 성경학교 팀에 참석하겠다는 결단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전했다.

청년부 새벽부흥회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합한 기도’

법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각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기도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나 각 부서별 여름수련회와 청년부의 농촌봉사활동, 캄보디아 단기선교 등을 위한 기도와 각자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회 후, 같이 아침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년부 달란트 학교

준비는 힘들었지만, 어린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에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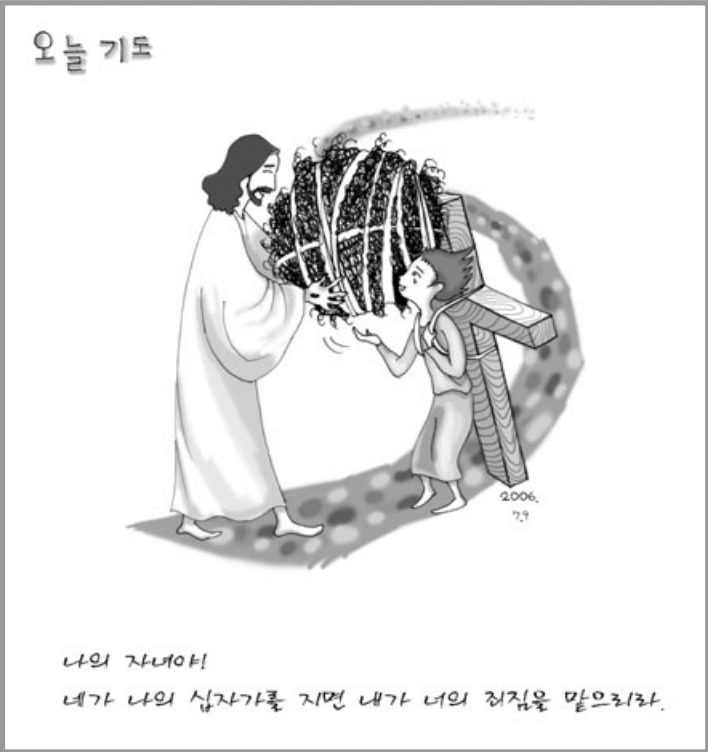


유년부에서는 매 월 마지막 주일에 ‘달란트학교’가 열린다. 학생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달란트학교는 풍선아트반, 종이접기반, 그림반, 놀이반, 요리반, 찬양반 등이 있고 각 반에는 약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25일, 풍선아트반에서는 ‘예쁜 모자 만들기’를 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알록달록한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몇 개씩 만들어서 쓰고 즐거워했다. 종이접기반에서는 ‘색종이 고리 만들기’를 했다. 종이접기반의 최윤정교사는 종이접기는 어린이들의 손근육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신체 발달에도 좋다고 전했다. 찬양반은 찬양을 하나 선택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이들과 연습한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찬양을 그 다음 주, 예배 시작 전에 특송으로 부르고 있다. 찬양반의 박은애교사는

찬양반 수업을 예배시간의 특송으로 연결한 것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집에서 각자가 찬양과 율동을 연습해서 외워오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요리반에서는 ‘파일요구르트 만들기’를 했다. 먼저 요구르트는 미리 집에서 만들어 왔고, 수업시간에는 딸기잼과 사과와 복숭아를 다져서 함께 섞어서 먹었다. 요리반의 유경교사는 준비해온 재료에 대해 설명하고 섞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음식이 완성된 후 감사기도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 밖의 놀이반, 그림반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의 준비과정이 매우 바쁘고 힘들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119사역팀 자원봉사 모집

태풍과 수해의 피해 지역에 파견할 자원봉사자들과 구호물품을 신청 받습니다.

1. 자원봉사자

- 가. 1종 면허 소지자로 붓고 운전가능하신 분이나 붓고차량을 제 공하실 수 있는 분
- 나. 도배를 하실 수 있는 분
- 다. 주택수리가 가능하신 분
- 라. 전기시설 보수가 가능하신 분
- 마. 생활용품(특히 가전제품) 정비 및 보수가 가능하신 분
- 바. 의료 봉사가 가능하신 의사, 약사, 간호사 (수인성질환, 감기, 피부병, 식중독 등)
- 사. 방역 및 소독에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 (전염병 확산방지)
- 아. 그 외 관심이 많으신 분 (행정, 구매, 연락, 숙식 등)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은 소정의 교육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받을 예정입니다.

2. 구호물품

- 가. 비상식품 (생수, 라면, 쌀, 김치, 건빵 등)
- 나. 취사도구 (휴대용가스렌지, 부탄가스, 주방세제, 숟가락 및 젓가락 등)
- 다. 필요물품 (세면도구, 거울, 휴지, 옷가지, 수건/담요, 비닐원단, 신발, 손전등..)

3. 문의 전화번호 016-248-9182

청년공동체 농활 도움 요청!

8월 1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가지는 청년 공동체에 미용과 의료 사역을 섬겨주실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공동체를 섬기는 윤은성 목사(017-566-1207)에게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79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7월 9일

2006 여름선교

온 성도의 기도제목, “Killing Field에서 Loving Field로”

▶단기선교 참여팀

팀구분	인원	일 정	팀 장	담당교역자	사역지역
우물파기팀	14명	7. 26(수) - 8. 2(수)	장일형	이창현	다케오 캄쑈, 프놈펜
선교이야기팀	12명	8. 7(월) - 8. 13(일)	손영익	윤은성	시아누크빌
청년1팀	8명	8. 9(수) - 8. 13(일)	권호림	윤은성	캄보디아 서북부, 베트남
청년2팀	20명	8. 9(수) - 8. 18(금)	김정희	윤은성	시엠리엵, 시스폰
청년몽골팀	15명	8. 11(수) - 8. 19(일)	정우석	김신영	울란바토르
청년중국팀	13명	8. 14(수) - 8. 19(일)	나혜정	이상호	심양, 연길
중고등부	40명	8. 14(수) - 8. 17(일)	유성훈	홍민기	시엠리엵, 시스폰
의료선교팀	34명	8. 14(월) - 8. 20(일)	김학원	정희성	다케오

2006년 여름은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청년과 장년에 총 8개팀 160여명의 성도들이 해외선교에 동참하여, 캄보디아, 중국, 몽골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특별히 캄보디아에 선택과 집중의 선교를 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한 후 지난 봄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한 다케오 지역 병원 건립과 향후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진 양성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의 기초를 놓는 일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 교회가 참여하는 전문인 선교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시작의 첫발걸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하였다. 7월 15일 토요일 저녁 6시 지하중강당에서 캄보디아 선

교에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 장년들과 선교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참여할 모든 성도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준비되었다. 캄보디아의 역사와 선교 현황에 대한 세미나와 전체 기도와 찬양 모임으로 이루어진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게 된다.

또한 7월 23일 주일 3부 예배시 7월 26일 우물파기 사역팀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계속 될 단기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파송예배를 드리는 선교주일로 지게 된다. 기도 모임과 파송 예배에 전 성도가 기도와 후원과 직접 참여하여 주님의교회에 선교에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될것다.

지난주일 임직자 선거(1차투표) 결과

장로 3명, 안수집사 28명, 권사 30명 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및 집계한 1차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투표수 : 1050명

당선기준

장로 - 유효표수 1007표 중 당선확정 672표 이상 (2/3)

집사 - 유효표수 1012표 중 당선확정 507표 이상 (과반수)

권사 - 유효표수 1011표 중 당선확정 506표 이상 (과반수)

장로피택자(3명)

조원호 최상진 신정웅

집사피택자(28명)

왕승근 백익환 전진호 이진원 박호현 박재준 최장규 정원영 최성진 이동희 고한규 이 열 박영주 김은성 신형섭 이재현 윤성진 한근희 양태홍 권승환 김유호 공진권 김기성 손철규 정종국 정동위 권순영 박기운

권사피택자(30명)

김설희 서금란 김영희 김정선 이해옥 장경애 우진선

임선자 이혜숙 조순자 김정숙 이은우 박혜숙 김현주 허명숙 이희순 이현숙 박순희 박서연 김철자 강혜선 김영숙 이영남 김화자 김연희 최진욱 김예식 도성자 김향순 김희숙

위의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 임직자선출을 위한 2차투표를 실시한다.

2차투표 후보자는 1차 투표결과 다득표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1.5배수, 즉, 장로 11명, 집사 18명, 권사 15명이 선정되었다. 그 중 장로 7명, 집사 12명, 권사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신여고 1층 로비에서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되며, 올해 5월 31일까지 등록한 교인으로 세례, 입교를 받은 모든 교인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오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님의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동같은 일꾼들을 뽑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함즐함울

www.pcltv.org

1차 선거결과

2/3면

유년부 달란트학교

4면

119사역팀 자원봉사 모집

4면

청년부 농활 모집

4면

영화상영“샤크”16일 오후 4시 중예배실

4부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낯선 이웃을 초대합니다.

4부 전도예배 “오늘”에서는 지난 주 이어 “잘 쉬어야 잘 산다”는 대주제 “休...”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드러진다. 오늘은 신경정신과 의학박사로 대인관계클리닉을 전문으로 하는 양창순 박사의 “몸과 마음의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 양박사는 탁월한 심리클리닉으로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확신을 품고 상담하여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도전을 주고 있다. 그의 저서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과 <무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플래티넘 심리의 법칙>등에서 나눈 이야기와 “수동적 공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박사는 몸과 마음의 치유와 영적인 쉼을 나눌 것이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이제 구역과 소그룹을 통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새가족 환영회
4부 예배와 함께 7월 2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200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을 초대하여 환영한 자리였다.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가족들이 구역을 비롯한 소그룹에 속해서 주님의교회에 튼실하게 뿌리내릴 뿐더러 더욱 성장하여 교회 밖에서 해매고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도 힘을 모으자고 했다. 4부 예배후에 각 교구 별로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다과를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교구마다 새가족을 환영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새가족을 위해 구역의 섬기미들이 함께 참석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2006년 임직자 선거 공고

오늘 2006년 임직자선거 2차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인들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 및 기준

- 투표장소 : 정신여중고 본관1층
- 선출인원 : 장로 7인, 집사 12인, 권사10인
- 선출기준 : 장로 - 투표자의 2/3이상 득표
집사,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 2차 투표 후보자선정
1차투표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 투표과정
1) 2차투표 : 7월 9일(주일) 오전 8:30-오후2:00
2) 2차투표결과발표 : 7월 12일(수) 수요일예배 후(공동의회 폐회)

특기사항

- 2차투표는 1차투표 결과 피택인원에 미달된 부족수의 1.5 배수를 다득표자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 전자개표를 하므로 반드시 비치되어있는 컴퓨터용 수정 싸인펜으로 투표용지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V표나 X 표 등은 삼가해 주십시오).
- 잘못 표기했을 경우, 비치되어있는 수정테이프로 지우시면 됩니다.
- 투표용지는 절대 접지마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 후보공천자의 봉사부서 기록은 최근 사역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 사진

이름 (교구-구역)
출생일/등록일/수세일
봉사부서

장로후보 공천자

1차선거 득표순 <7명까지>

김용일 (4-10)
42년생/88년/60년
계수부장
새가족모임교사

김한중 (5-9)
48년생/93년/90년
자원봉사연결팀장
차량부장

김창안 (1-3)
47년생/95년/87년
살롱찬양대장
복지선교팀장

박중규 (7-3)
48년생/89년/90년
새가족사역팀장
계수부장

이성우 (4-18)
46년생/88년/78년
안내부
장학위원장

이용수 (4-4)
59년생/90년/85년
유소년축구팀장
구역장

조성득 (7-20)
54년생/91년/70년
농어촌교회사역팀장
차량부

이동순 (7-12)
45년생/89년/77년
유치부교사
중보기도사역팀

지유철 (6-18)
50년생/93년/93년
새가족모임교사
시온찬양대

장일형 (1-10)
47년생/94년/86년
캄보디아선교팀장
주방부

김기용 (3-4)
46년생/91년/92년
차량부장
함줄함울편집팀

안수집사후보 공천자

1차선거 득표순 <12명까지>

지호선 (7-19)
61년생/97년/78년
중등1부부장
구역장

정재훈 (6-2)
54년생/94년/96년
세례사역팀장

박 건 (1-17)
40년생/97년/77년
1부찬양대

김용진 (7-7)
56년생/96년/90년
30cup부장
계수부

조선연 (3-11)
52년생/97년/90년
예배부
가정사역팀

이병직 (3-4)
57년생/96년/90년
구역장
차량부

김병한 (7-3)
52년생/93년/78년
구역장

장득순 (3-2)
52년생/96년/70년
구역장
안내부

2006년 임직자 선거 공고

송승엽 (5-22)
42년생/97년/98년
호산나찬양대

이진걸 (4-2)
58년생/97년/89년
살롱찬양대
구역장

손영익 (2-9)
59년생/96년/76년
선교이야기강사

유정식 (2-5)
58년생/97년/98년
안내부
중보기도사역팀

황오환 (7-2)
56년생/93년/72년
고등부교사
법률상담사역팀장

이성래 (5-21)
55년생/90년/85년
예배부

이성준 (2-10)
54년생/97년/80년
구역장
새가족모임교사

방치웅 (5-2)
55년생/97년/98년
구역장
차량부

김종걸 (3-7)
62년생/99년/84년
구역장
함줄함울

최충남 (6-7)
43년생/96년/56년
구역장

권사후보 공천자

1차선거 득표순 <10명까지>

조명희 (5-16)
54년생/91년/85년
초등부교사

박성자 (5-9)
62년생/93년/84년
새가족모임교사
중보기도사역팀

이미화 (5-21)
57년생/90년/83년
성찬부
세례사역팀

백경애 (4-17)
55년생/92년/93년
주방부
권찰

장혜정 (4-2)
59년생/97년/83년
구역장
교육지원부

이동숙 (6-14)
57년생/91년/89년
전도예배사역팀

허영자 (1-17)
43년생/97년/62년
호산나찬양대

유영옥 (6-1)
52년생/94년/87년
썩네 교사
호스피스

정옥춘 (1-7)
39년생/02년/76년
구역장
중보기도

이드브라 (4-16)
41년생/94년/81년
안내부
구역장

박형자 (5-22)
43년생/91년/86년
주방부

이기원 (5-18)
48년생/96년/91년
구역장
고등부교사

임혜숙 (5-7)
58년생/93년/76년
구역장

신명식 (1-1)
49년생/94년/83년
전도예배
유아부

윤현숙 (7-16)
50년생/92년/80년
유치부교사
어와나사역팀

전방 15사단에서 온편지

“자살을 결심했던 한 병사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복방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민가가 하나도 보

할렐루야! 우리 승진교회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군인교회로서 민통선

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군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주일과 수요일이 되면

50-7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악기가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던 중 주님의교회에서 피아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무반에 있는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군복음화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면 지난번 이등병이 전입을 왔는

데 부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자살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병사를 교회 다니는 고참이 알고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상담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그 병사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빠짐없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승진교회 전우들은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협력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